

제1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입론으로 시작하여, 반론,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배심원께서도 각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저희는 우리나라가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 수준은 국내 총생산 대비 9.3%로, 우리도 가입되어 있는 OECD 국가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선진국에 비교해서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복지 예산을 늘려서 무상 교육, 의료 보험, 노인 연금, 그리고 실업과 질병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여 모든 국민이 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 1: 저희는 복지 예산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아동, 임산부, 청소년, 노인 등 복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또 다양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 예산의 확대가 아니라, 복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면서 국가 재정은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자: 이제 입론을 마치고 반론을 들겠습니다. 반대 측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 2: [A] 찬성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OECD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늘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최근 3년간 걷지 못한 세금이 최대 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 부채 역시 최근 6년 사이 220조 원이 증가해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 총 부채가 4천 835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국가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과의 단순 비교를 바탕으로 복지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성 2: 최근에 하위 10% 미만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다소 늘었을 뿐, 1970년대 이래로 우리의 복지 제도는 건강 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 보험 제도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계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 따라서 반대 측도 인정하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뿐더러, 복지 수요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면, 그만큼 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복지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 안전망의 구축은 실효성 없는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복지 예산을 늘려서 중산층과 서민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1.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발언이군.
 - ② 상대방과 동일한 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언이군.
 - ③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발언이군.
 - ④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 주장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기 위한 발언이군.
 - ⑤ 배심원의 감정적 측면에 호소하여 자신들 주장의 도덕적 약점을 감추기 위한 발언이군.

2. 토론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발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측은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확인해 보셨나요?
 - ② 기준이 모호한 통계 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 ③ 찬성 측은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의 규모를 확인해 보셨나요?
 - ④ 찬성 측의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는 자료 아닌가요?
 - ⑤ 경제적인 문제를 들어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3. 다음은 배심원인 학생이 토론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각 발언자의 발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발언자	발언 내용
사회자	토론의 주제와 토론의 절차를 안내함. ①
찬성 1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며 기존의 복지 예산을 늘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②
반대 1	기준에 책정된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③
반대 2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④
찬성 2	현행 복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⑤

[4~5] 다음은 방송 대담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독립 영화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장식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문 환경 전문 기자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담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공장식 축산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나요?

대담자: 공장식 축산은 비좁은 시설에 대량의 가축을 모아 사육하는 방식으로, 이 시설에서 동물들은 공산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 몸을 돌릴 수도 없는 감금 틀에 암태지를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일평생 쉬지 않고 임신하고 새끼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이러한 방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진행자: 저도 그간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는데요. 이 동물이 어떻게 길러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네요. 다른 동물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대담자: 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은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A4 용지 한 면에도 미치지 못하는 철창 우리에서 서로 쪼지 못하도록 부리가 잘린 채로 매일 달걀을 낳으면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말 안타깝네요. 업체 측에서 이런 방법으로 가축을 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담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함이지요. 고기를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답변입니다. 실제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9kg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의 8배에 달하는 많은 양이지요.

진행자: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안타깝고, 참 고민스럽네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대담자: 유럽 연합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감금 틀이나 철창 우리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동물 보호 단체가 이런 시설을 금지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은 개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동물을 감금하고 기계처럼 생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공장식 축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대담자: 이와 같은 시설 문제와 함께 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장식 축산 방식은 축산 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신종 플루나 조류 독감과 같은, 인간에게 유해한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돼지에서 기원한 신종 플루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오늘 새로운 사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진행자의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추가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새로운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③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발언을 재진술하여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발언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 <보기>를 참고로 하여 생각해 볼 때, 대담자의 입장을 대변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설득을 위한 화법에서 현재 상황의 변화를 제시하는 주장을 할 때는 문제 상황을 나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① 공장식 축산은 한곳에서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으로 인해 위생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인간에게 유해한 전염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 ②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불쌍한 동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동물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이러한 학대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공장식 축산은 한정된 공간 안에 대량의 가축을 모아 사육하는 시설로서, 최대한 시간에 최적의 무게와 양질의 고기를 얻기 위한 인공적인 기술을 거침없이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④ 공장식 축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 많은 관심을 통해 여론이 형성된다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반대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 ⑤ 공장식 축산은 방법 면에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감금 틀과 같은 비인도적 사육 환경을 제재하고 위생적 환경을 구축할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6~8] 학교 신문에 기고를 하기 위해 (가)와 같은 계획을 세운 후 (나)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글쓰기 계획

[주제] 산림 병해충의 원인과 대책

- 서론: 산림의 중요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 본론: 1.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 현황을 제시한다.
2. 병해충의 원인을 살펴본다.
3. 살펴본 원인을 바탕으로 대책을 제시한다.
- 결론: 산림 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마무리한다.

(나) 학생의 초고

산림은 인간에게 많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국립산림과학원이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서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2010년 기준으로 국토의 63.7%에 해당하는 636만 9,000ha인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9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귀중한 산림이 병해충에 의해 해마다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산림 병해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병원균과 해충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방제에 주력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선충이라는 병원균에 의해, 솔잎혹파리병·솔껍질깍지벌레병·참나무시들음병 등은 해충에 의해 발생한다.

산림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해충의 피해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과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해충들의 활동 시기로 산림 내 수목은 물론, 보호수, 공원, 완충 녹지, 가로수에 대해 예찰 활동을 하고 적기에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집중 방제를 통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방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이다. 살충제를 이용한 방제는 천적을 비롯한 유용한 생물까지도 죽이는 등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단점도 있지만, 효과가 정확하고 빨라서 초기에 피해 방지가 가능하며, 약제의 구입이 용이하고 방제 기구도 잘 발달되어 있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항공기를 이용한 살충제 방제를 실시할 때에는 때를 놓치지 말고 알맞은 시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산림에 관심을 기울이고, 병해충의 피해를 당한 수목을 발견하면 즉시 지자체의 산림공원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별로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피해 여부를 살필 조사원과 방제 요원으로 구성된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산림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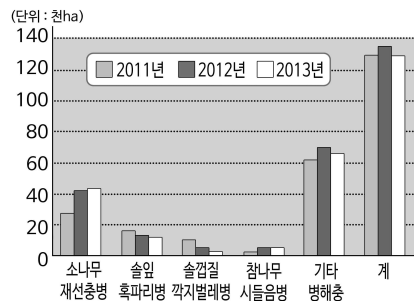
6. (가)를 구체화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산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여 '서론'을 구체화한다.
- ㉡ 병해충의 원인을 병원균과 해충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 병해충의 피해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과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 병해충을 방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개인과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하며 '결론'을 구체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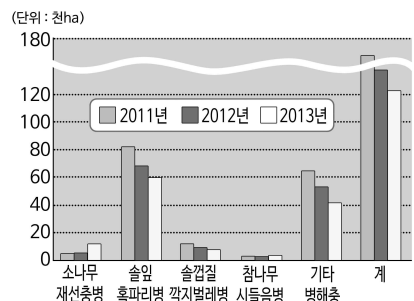
7. 추가로 수집한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을 바꾸어 쓰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산림 병해충 발생 현황



㉡ 산림 병해충 방제 현황



- ㉠ ㉠을 활용하여 '그래프에서 주요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발생 면적에 차이가 있고, 기타 병해충의 발생 면적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로 바꾸어 쓴다.
- ㉡ ㉡를 활용하여 '그래프에서 해마다 주요 병해충의 발생 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물론 기타 병해충의 발생 면적도 급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로 바꾸어 쓴다.
- ㉢ ㉡를 활용하여 '그래프에서 주요 병해충의 피해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피해 규모가 크며, 특히 일부 병해충의 경우 오히려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로 바꾸어 쓴다.
- ㉣ ㉡를 활용하여 '그래프에서 주요 병해충에 비해 기타 병해충의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면적이 더 넓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로 바꾸어 쓴다.
- ㉤ ㉡를 활용하여 '그래프에서 주요 병해충과 기타 병해충에 대한 방제 작업이 이루어진 면적을 합산한 결과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로 바꾸어 쓴다.

8.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항공 방제를 하면 방제 지역 주변 민가의 장독대, 우물, 빨래 등이 살충제에 노출될 수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서는 과연 항공 방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 걱정이 많다.

- ① 항공 방제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분석하여 기존의 항공 방제가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앞으로는 항공기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해야겠군.
- ②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약간의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항공 방제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금전적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해야겠군.
- ③ 항공 방제를 통해 살충제를 산림에 살포해야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수 있고, 산림이 보호될 때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항공 방제의 필요성을 부각해야겠군.
- ④ 산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 중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비용 면에서는 항공 방제가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겠군.
- ⑤ 항공 방제 때 인체에 무해한 살충제를 사용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방제 지역과 일정을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주민들이 방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야겠군.

[9~10] 다음은 학교 신문에 '생활 속의 상식'란에 쓸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콘택트렌즈를 처음 생각해 낸 사람은 화가이면서 조각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합니다. 그는 물이 든 짧은 튜브를 눈에 대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을 ㉠ 제공했다고 합니다. 물이 든 튜브가 빛을 굴절시킨다는 것인데, 이 원리는 오늘날의 콘택트렌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후 몇 세기 동안 유리를 이용하여 렌즈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77년 최초의 실용적인 렌즈가 ㉡ 개발되었습니다. 그 후 플라스틱 렌즈가 나왔고, 1940년대에 이르러 눈의 중심 부분만 덮는 현대적인 콘택트렌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콘택트렌즈는 재질에 따라 하드렌즈와 소프트렌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드렌즈는 딱딱한 재질이라서 눈에 넣었을 때 이물감이 있지만, 크기가 작고 산소 투과가 잘 됩니다. 반면에 소프트렌즈는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이물감이 적고, 착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산소가 잘 통하지 않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는 무거운 안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미용에도 도움이 되며, 시력을 정확하게 교정해 주는 반면, 장기간 착용하면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 그러나 각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건조해진 렌즈가 달라붙어 각막 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렌즈 착용 때문에 생기는 각종 질환을 막으려면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는 외에 렌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눈에 충혈이 생기거나 이물감이 들면 안경을 끼는 것이 좋습니다. ㉤ 집에 귀가하면 손을 씻은 후, 눈에서 렌즈를 빼내어 철저하게 소독과 세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렌즈를 끼고 잠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손톱을 짧게 깎아서 렌즈나 각막이 긁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밑줄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콘택트렌즈의 재료를 설명한 뒤 제작 방법을 서술한다.
- ②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대조의 방법으로 서술한다.
- ③ 콘택트렌즈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콘택트렌즈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 ⑤ 콘택트렌즈의 발명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안했다고'로 고친다.
- ② ㉡: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로 수정한다.
- ③ ㉢: 접속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러나'로 바꾼다.
- ④ ㉣: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서 문단을 나눈다.
- ⑤ ㉤: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집에'를 삭제한다.

11. <보기>의 ㉠~㉣의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가>

겹받침 ‘리’의 발음은 체언의 경우 ‘닭이[달기], 닭을[달글]’ 등과 같이 모음 앞에서 본음대로 ‘리’을 모두 발음하지만 ‘닭도[닥또], 닭과[닥까]’ 등과 같은 자음 앞에서는 ‘ㄹ’을 탈락시키면서 ‘ㄱ’만을 발음한다. 한편 용언의 경우에는 ‘늪은[늘근], 늪으면[늘그면], 늪어[늘거]’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본음대로 ‘리’을 모두 발음하고, ‘늪고[늘꼬], 늪거나[늘꺼나]’와 같이 ‘ㄱ’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ㄹ’만을 발음하며, ‘늪소[늑쏘], 늪더니[늑떠니], 늪지[늑찌]’와 같이 ‘ㅅ, ㅈ, ㅊ’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ㄱ’만을 발음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겹받침 ‘리’의 발음

- 체언
 -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 ㉠
 -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 ㉡
- 용언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
 -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
 - ‘ㅅ, ㅈ, ㅊ’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

- ① ㉠: 흙으로[홀그로]
- ② ㉡: 칩까지[척까지]
- ③ ㉢: 밝은[발근]
- ④ ㉣: 뭍고[물꼬]
- ⑤ ㉤: 맑다[말따]

12.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결다¹ [결: -] [걸어, 거니] ㉠

- ㉠ 흙이나 거름 따위가 기름지고 양분이 많다.
 ▶ 눈이 걸어서 벼가 잘 자란다.
- ㉡ 액체 따위가 내용물이 많고 진하다.
 ▶ 풀을 너무 길게 썬어서 풀칠하기가 어렵다.
- ㉢ 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
 ▶ 이 식당은 반찬이 걸게 나온다.

결다² [결: -] [걸어, 거니] ㉡

[1] [...에 ...을]

- ㉠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 그림을 벽 한가운데에 걸다.
- ㉡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 방문에 문고리를 걸다.
- ㉢ 술이나 냄비 따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다.
 ▶ 아궁이에 냄비를 걸다.

- ① 결다¹과 결다²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 ② 결다¹과 결다²는 모두 다의어이다.
- ③ 결다¹의 ㉢ 용례로 ‘잔치라서 그런지 술상이 걸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결다²의 ㉠과 반의어 관계에 있는 말로 ‘떼다’를 들 수 있다.
- ⑤ 결다²는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13. <보기>는 ‘한글 맞춤법’에 관한 수업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가>

선생님: ‘한글 맞춤법’ 제51항에서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발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적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예) 간간이
2. ‘ㅅ’ 받침 뒤 (예) 지긋이
3.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예) 괴로이
4.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의 어간 뒤 (예) 깊이
5.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예) 생긋이

학생: ㉠

- ① ‘줄줄이’나 ‘툼툼이’는 앞말이 첩어이기 때문에 끝음절을 ‘-이’로 적는군요.
- ② ‘버젓이’나 ‘번듯이’는 ‘ㅅ’ 받침 뒤이기 때문에 끝음절을 ‘-이’로 적는군요.
- ③ ‘나들이’나 ‘점잖이’는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이기 때문에 끝음절을 ‘-이’로 적는군요.
- ④ ‘같이’나 ‘굳이’는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의 어간 뒤이기 때문에 끝음절을 ‘-이’로 적는군요.
- ⑤ ‘더욱이’나 ‘일찍이’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다시 부사가 되기 때문에 끝음절을 ‘-이’로 적는군요.

14. <보기 1>의 문장을 수정하는 데에 고려된 것만 <보기 2>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1>

초대한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지만, 우선 내가 너에게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 줄게.
→ (수정 후) 초대한 친구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지만, 우선 내가 너에게 친구 한 명을 소개해 줄게.

<보기 2>

- ㉠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수정했다.
- ㉡ 중의적 의미가 해소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 ㉢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드러나도록 수정했다.
- ㉣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5. <보기>의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동아리실에서)
길동: 우치야, 선생님 좀 모시고 와. 축제 준비 상황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

(교무실에서)
우치: ㉠저, 안녕하세요? 선생님, 길동 선배가 오시래요.
선생님: 그래, 그러자. ㉡그런데 하던 일이 있어 지금은 ㉢못 가. 일이 끝나는 대로 곧 갈 테니, 너 먼저 가 있어.

(동아리실에서)
길동: ㉣선생님은?
우치: 하던 일이 ㉤있으셔서 끝나는 대로 곧 오신대요.

- ① ㉠: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자신을 낮춤으로써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나타낸다.
- ② ㉡: 접속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말할 내용이 접속어 사용 전에 말한 내용과 다른 내용임을 나타낸다.
- ③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불가피한 일로 갈 수 없음을 나타낸다.
- ④ ㉣: 길동과 우치가 발화 맥락을 공유하고 있어 서술부의 내용을 생략하고 주어부만 제시한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질문을 한다.
- ⑤ ㉤: 선생님은 우치와 길동이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인다.

16. <보기>를 통해 중세 국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니물 보습고져 흐노니
현대어 역: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니

중세 국어: 金色女(금색녀) | 文殊(문수)의 물즈보디
현대어 역: 금색녀가 문수께 여쭙되

- ① '나도'를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주격 조사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스승니물'과 '물즈보디'를 보니 이어적기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보습고져'와 '흐노니'를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이나 모음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보습고져'와 '물즈보디'를 보니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文殊(문수)의'를 보니 음절 어두에 자음군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기업이 한 고객을 잃는다는 것은 한 번의 매출 손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한 고객이 기업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에 걸쳐 발생시킬 누적 구매, 즉 '고객 생애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훌륭한 '고객 관계 관리'는 우량 고객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 고객 생애 가치를 얻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 고객 점유율이란 해당 제품 범주에 대한 고객의 구매액 중에서 자사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할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기업은 수익성 있는 고객을 창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함으로써 고객 생애 가치를 얻고 더 높은 구매 점유율을 차지하고자 한다. 고객 관계 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높은 '고객 자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고객 자산은 현 고객과 잠재 고객 각각의 고객 생애 가치를 합한 것을 말한다. 수익성 높은 고객이 기업에 대해 더 높은 충성도를 보일수록 그 기업의 고객 자산은 증가한다. 고객 자산은 현재의 매출 혹은 시장 점유율보다 더 나은 기업 성과 지표일 수 있다.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과거의 기업 성과를 반영하는 반면, 고객 자산은 미래의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고객에 대해 신중하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한다. 그들은 고객을 관리되어야 할, 그리고 그 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객 모두가, 때로는 충성 고객 모두가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 잠재력에 따라 고객을 분류하고 이에 맞추어 고객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데, 각 고객의 수익성과 충성 유지 기간에 기반하여 고객 관계 집단을 '방문객 집단', '나비 집단', '진정한 친구 집단', '따개비 집단'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방문객 집단은 낮은 수익성과 짧은 충성 기간을 가진 고객을 말하는데, 기업의 제품물과 고객의 욕구 간에 적합성이 별로 없다. 이러한 특성의 고객들을 관리하는 전략은 단순하다. 그것은 이들에게 전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비 집단은 수익성은 높지만 충성 유지 기간이 짧은 고객을 말한다. 이 고객 집단은 기업의 제품물과 고객 욕구 간에 높은 적합성을 갖지만, 나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자사의 제품물을 즐기다가 다른 기업으로 옮긴다. 나비 집단을 충성 고객으로 전환하는 노력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은 그들과 짧은 기간 동안 좋은 거래를 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기업은 단발적인 관측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한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그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 집단은 수익성이 높고 충성 기간이 긴 고객이다. 고객의 욕구와 기업 제품물 간에 높은 적합성을 갖는다. 기업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들을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해 관계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 기업은 진정한 친구 집단을 '진정한 신뢰자 집단'으로 전환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기적으로 재구매하고, 그 기업과의 긍정적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따개비 집단은 충성 기간은 길지만 수익성이 별로 없는 고객들을 말한다. 고객 욕구와 기업 제품물 간에 제한된 적합성을 갖는다. 소액 구매의 은행 고객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은행과 거래를 하지만 그 고객의 구매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따개비 집단은 가장 골치 아픈 고객일 수 있다.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수익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거래를 포기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고객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고객 관계 전략이 요구된다. 결국 각 고객 관계 전략의 목표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을 유형별로 적합한 방법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17.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고객 자산은 고객이 보유한 재산의 정도를 의미한다.
- ② 고객의 수익성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 유지 기간이다.
- ③ 고객 점유율은 기업이 고객에게 투자하는 비용의 비율이다.
- ④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거래를 중시해야 한다.
- ⑤ 고객을 관리할 때는 수익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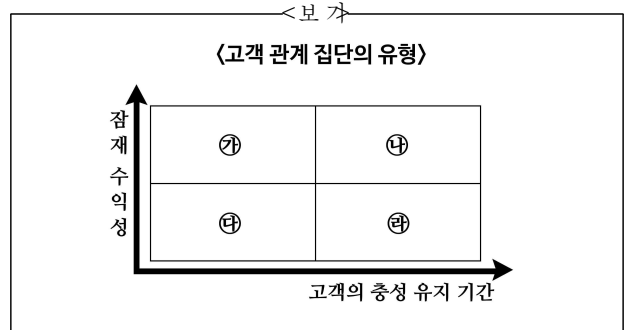
[3점]

< 보 기 >

1970~1980년대에 걸쳐 A사의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였다. 당시 최고급 승용차 시장에서 A사의 자동차 점유율은 51%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매출 실적이 높았던 A사는 호황을 구가했다. 그런데 A사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들의 평균 연령대는 60세였는데, 이들은 당시 보유한 차가 마지막 승용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사의 브랜드를 젊고 활기찬 이미지로 고객들에게 인식시키려 노력한 B사의 자동차는 초기의 시장 점유율 전쟁에서는 A사의 자동차에 비해 유리하지 않았으나, 평균 연령 40대의 고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B사의 시장 점유율과 이익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A사의 경영 실적은 점차 악화되었다.

- ① 1970~1980년대에 A사의 높은 매출은 미래보다는 과거의 기업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1970~1980년대에는 최고급 승용차 시장에서 A사의 자동차가 B사의 자동차보다 고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군.
- ③ 1990년대 이후 A사의 경영 실적이 악화된 것은 A사가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 관계 관리를 실패한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④ 1990년대 이후 B사의 이익이 증가한 것은 1970~1980년대에 높은 고객 생애 가치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⑤ 1990년대 이후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 양상이 달라진 것은 B사가 A사보다 고객 자산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19.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할 때, <보기>의 ㉡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은 이 집단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낮춰 수익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 ② 이 집단에 속하는 고객들은, 기업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쉽게 거래 기업을 바꾼다.
- ③ 기업이 투자 전략을 짤 때, 이 집단에 속한 고객들은 다른 집단의 고객들에 비해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④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이 집단에 속하는 고객들은 다른 집단의 고객들에 비해 큰 기여를 한다.
- ⑤ 기업은 다른 집단의 고객들보다 이 집단에 속한 고객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데 지속적인 투자를 하려 한다.

20. ㉠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케팅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케팅은 수익성 있는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이다.
- ② 마케팅은 단기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홍보를 하는 것이다.
- ③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과정이다.
- ④ 마케팅은 고객 만족을 토대로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 ⑤ 마케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욕구를 배제한 경영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의 극작가 브레히트는 '서사극 이론'을 제시하여 극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브레히트는 예술의 가치는 가치중립적인 즐거움을 전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현실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여 그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관객들이 극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는 것과 동시에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또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습을 하게 되기를 바란 것이다.

전통적 드라마는 무대 위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 구현한다. 무대 위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는 필연적인 전개를 통하여 모든 사건과 행동이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어느 부분도 자체 내에 존재 이유를 갖고 있지 않으며, 전체 이야기 전개의 부분적 기능이라는 역할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소유한다. 이와 같이 직선적이고 필연적인 인과 관계하에서 전개되는 전통적 드라마는 관객들에게 숨 쉴 기회를 주지 않는다. 관객들은 긴장에 싸여서 극에 빨려들어 가며 마치 무대 위의 사건이 실제인 양, 자신의 일인 양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서사극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반대이다. 서사극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각기 독립적이며 나름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지닌다. 각 장면들은 서로 인과 관계로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또 결말을 향해 ㉠ 매진할 이유도 없다. 결말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사회적 소재와 주제들로 인해 결말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관심은 전개 과정 그 자체로, 중심을 옮겨 오게 된다. 따라서 서사극을 볼 때 관객들은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구조적인 모순을 이야기 하는 결말에 대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들은 가슴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 배제한 채 분해된 연극 장면들의 파편을 헤치고 다니며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게 된다.

서사극에서는 이를 위해 '소격 효과'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전통적 드라마가 무대 위에서 또 다른 현실이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관객들을 무대 위의 사건에 감정 이입시켜 허구의 현실에 몰입하도록 하였다면, 서사극에서는 소격 효과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파괴한다. 이를테면 관객에게 말 걸기, 울부짖음에 버금가는 대사, 과장된 무대 장치 및 소품, 인물의 모순적 행위 제시 등과 같은 것이 소격 효과인데, 이를 통해 서사극은 관객들로 하여금 지금 무대 위에서 허구적 삶의 모습이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 각성시킴으로써 관객이 무대 위의 사건에 거리를 두고 관찰하도록 하였다. 무대와 관객 간의 교류가 감정 이입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관객은 자신이 감정 이입한 주인공이 보는 만큼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격 효과를 통해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를 비로소 새롭게 느끼는 기회를 갖게 된다.

결국 서사극은 이렇듯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게 함으로써, 관객 스스로 자신을 포함한 세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만 하겠다는 인식에 ㉣ 도달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21.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 드라마와 대비하여 서사극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② 서사극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통시적 관점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
- ③ 다양한 이론을 나열하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④ 서사극이 탄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서사극과 전통적 드라마의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사극에서 결말은 전개 과정에 비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 ② 서사극에서 각 장면은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 존재 가치를 지닌다.
- ③ 전통적 드라마에서 각 장면은 인과 관계에 의한 필연성을 지닌다.
- ④ 서사극에서 관객들은 무대 위의 현실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된다.
- ⑤ 전통적 드라마에서 모든 사건은 결말을 향해 가는 이야기 안에서 존재 가치를 지닌다.

23. 윗글에 언급된 서사극의 관점에서 <보기>의 회곡을 극으로 상연한다고 할 때, 이를 연출한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 ... (중략) ...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이'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입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니님이 돌아오세요. 어머니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 (중략) ...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툰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툰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 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 이근삼, 「원고지」 중에서

- ① 장녀가 관객에게 말을 걸도록 한 것은 관객들이 무대 위에서 허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겠군.
- ② 교수가 비명 소리에 가까운 큰 하품을 하게 한 것은 관객들이 무대 위의 인물의 행동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하기 위한 방법이겠군.
- ③ 장녀의 대사와 처의 행동이 모순되도록 한 것은 관객들이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겠군.
- ④ 교수가 아래위로 원고지 무늬의 양복을 입게 한 것은 관객들이 과장된 소품을 통해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겠군.
- ⑤ 처가 교수의 허리에 감긴 철쇄를 풀고 다른 굵은 줄을 감아 주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관객들로 하여금 해당 장면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면서 현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24. ㉠~㉣의 사전적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 ② ㉡: 어떤 일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해 나감.
- ③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④ ㉣: 깨달아 앎.
- ⑤ ㉣: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훤히 앎.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13년 8월 어느 날 모나코 몬테카를로의 도박장은 사람들의 탄식과 함께 술렁이기 시작했다. 룰렛 게임이 벌어지는 테이블에서 구슬이 연속으로 무려 26번 검은색으로 떨어지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26번 게임이 진행되는 중간 과정에서, '이전까지 연달아 검은색으로 구슬이 떨어졌으니 이번에는 붉은색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많은 돈을 걸어 결과적으로 가진 돈을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빨간색 아니면 검은색이라는 50%의 확률 상황에서 연이어 100번 검은색이더라도 101번째가 빨간색일 확률은 여전히 50%이다. 그런데 몬테카를로의 도박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게임이 진행될수록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심리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독립적인 사건이므로 이전의 사건이 이후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이전과 반대의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착각하는 이와 같은 오류를 '몬테카를로의 오류' 또는 '도박사의 오류'라고 한다.

도박사의 오류와 반대되는 '뜨거운 손 오류'라는 심리적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다. 도박이나 스포츠에서 한 번 성공적인 성과를 보인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믿는 심리로서, 이 경우 사람들은 흔히 '발동이 걸렸다.'라고 표현한다. 주사위를 던져 높은 수가 나온 사람이 이기는 게임에서 직전에 '갑'이 던진 주사위가 세 번 연속 6이 나온 상황이면, 이번에도 '갑'이 던지면 6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자연법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서 직전에 부정적인 사건들 위주로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도박사의 오류를 쉽게 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현상을 놓고도 그 현상이 일어나는 분야가 인간의 의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전에 긍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반대로 뜨거운 손 오류를 쉽게 범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이 실험은 동일한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전혀 다르게 예측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박사의 오류나 뜨거운 손 오류는 모두 통제의 환상과 함께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통제의 환상은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뭔가에 대해 자신이 통제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일컫는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복권 당첨은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자신이 지금까지 복권을 사서 당첨된 적이 없으므로 1등이 많이 나온 복권 가게를 찾아간다는가, 그동안 나온 당첨 번호들을 분석한다든가 하는 특정 행위를 자신이 하게 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복권을 계속해서 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사위 숫자 6이 나올 확률은 매번 1/6인데도 직전에 던진 숫자가 연달아 '6'이 나왔던 걸 보고서 '6'이라는 숫자를 크게 외치면서 그 숫자가 꼭 나오기를 희망하면 이전에 나왔듯이 또 '6'이 나올 확률이 높을 거라 믿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 통제의 환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 실험 결과를 근거로 이것이 특히 정신 건강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자신이 영향력을 끼치거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여지가 작을수록 스트레스는 커지고 그만큼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25. 밑글에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도박사의 오류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 ② 도박사의 오류와 뜨거운 손 오류는 어떤 관계인가?
- ③ 도박사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
- ④ 뜨거운 손 오류에 빠진 심리가 잘 드러나는 표현에는 무엇이 있는가?
- ⑤ 통제의 환상이 건강에 미치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2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0마리의 말이 달리는 경마에 A씨와 B씨는 내기를 걸었다. 3번 말이 네 번 연속 우승을 하자 한 번도 맞지 못한 A씨는 3번 말이 또 우승할 확률은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5번 말의 우승을 점치며 내기를 걸었고, B씨는 직전 경기들의 분위기를 타고 계속해서 3번 말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점치며 3번 말에 배팅을 하였다.

- ① A씨는 다섯 번째 경기 결과를 예측하면서 도박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 ② B씨는 다섯 번째 경기 결과를 예측하면서 뜨거운 손 오류를 범하고 있다.
- ③ A씨는 이전 경기 결과들을 근거로 다섯 번째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 ④ B씨는 직전 경기의 흐름이 '발동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섯 번째 경기를 예측하고 있다.
- ⑤ A씨는 경마에 자신의 의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하에 심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심리학자 맬빈 리너는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사 모든 일이 우연한 것은 없고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걸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실패율이 높아진다거나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귀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른 데가 있어서 그런 거라며,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 자신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서 그와 같은 상황이 온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① 통제의 환상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걸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② 통제의 환상은 세상일의 우연성을 부정함으로써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만 찾으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 ③ 통제의 환상은 모든 불우한 상황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④ 통제의 환상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일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⑤ 통제의 환상은 당사자 개인과 관련된 사적인 문제도 사회가 나서서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와 지구상 모든 물체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복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체가 점점 냉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만물이 에너지를 방출할 뿐 아니라 흡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태양은 매우 고온의 물체이므로 모든 파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주로 0.5 μm 내외의 파장에서 최대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상대적으로 저온인 지구는 주로 5~25 μm 파장의 적외선으로 거의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같은 양의 에너지를 적외선으로 방출하여 일정한 평형을 이루는데, 이때의 온도는 약 -18 $^{\circ}\text{C}$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대략 15 $^{\circ}\text{C}$ 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구의 대기권에 포함된 기체 상태의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이 특정 파장의 복사를 흡수하고 다른 것은 투과시키는 선택 흡수체이기 때문이다. 태양이 방출하는 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켜 보았을 때 적외선은 가시광선 중 적색선의 끝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파장이 0.75 μm 에서 1mm 범위에 속하는 전자기파이다. 이 적외선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비해 열작용이 강하여,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에너지의 상당량이 적외선 복사에 의한 것이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일부 파장을 제외하고는 적외선을 강하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체들은 태양에서 복사된 적외선과 지구에서 복사된 적외선을 흡수하여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운동이 활발해진 기체의 분자들이 적외선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산소, 질소 등 주위 분자들과 충돌함으로써 적외선을 흡수하여 얻은 에너지를 나누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기 중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대기 온도 역시 올라간다. 또한 복사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물체는 같은 파장으로 복사 에너지를 선택 방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체 또한 적외선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일부는 지구 표면에서 흡수됨으로써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한편, 8~11 μm 파장의 적외선에 대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의 흡수율이 낮아, 지구가 방출하는 이 파장의 적외선은 흡수되지 않고 대기를 통과해 우주로 방출된다. 하지만 구름 속의 물방울은 이 파장의 적외선 복사를 잘 흡수하는 선택 흡수체이기 때문에, 구름이 이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여 대기의 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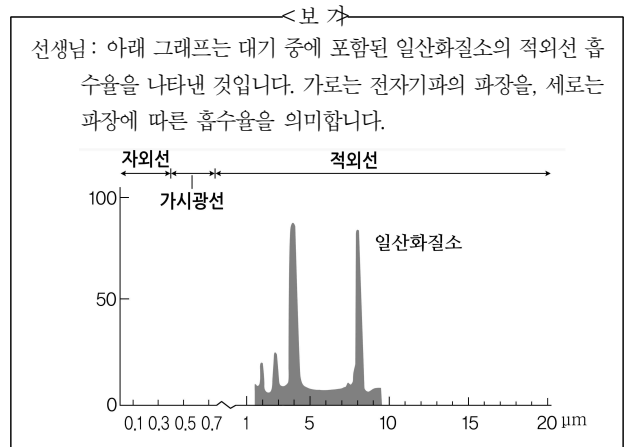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수증기, 이산화탄소, 구름 등이 적외선 에너지를 흡수, 방출함으로써 지구의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외계로 급속히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단열층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런 선택 흡수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 표면은 대기가 없을 때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 복사 : 물체로부터 열이나 전자기파가 사방으로 방출됨.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기권이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현재보다 높아지게 된다.
- ②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한다.
- ③ 대기 중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대기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 ④ 태양이 방출하는 빛 중에서 적외선이 자외선보다 열작용이 강하다.
- ⑤ 이산화탄소는 일부 파장의 적외선을 제외하고는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다.

29.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일산화질소는 일종의 선택 흡수체로 볼 수 있겠군.
- ② 일산화질소는 복사 에너지를 적외선으로 방출하겠군.
- ③ 대기 중 일산화질소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겠군.
- ④ 대기 중 일산화질소는 가시광선을 흡수하여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군.
- ⑤ 일산화질소가 흡수하는 적외선 파장의 범위는 구름의 물방울이 흡수하는 적외선 파장의 범위와 일부 겹치겠군.

30.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지구는 에너지의 흡수량보다 복사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겠군.
- ② 지구의 적외선 복사 에너지는 지구 대기 온도와 관련이 없겠군.
- ③ 물체의 온도와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 범위는 관련이 있겠군.
- ④ 대기 중에 수증기와 같은 선택 흡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 표면 온도는 점차 상승하겠군.
- ⑤ 대기 중의 산소 농도의 증감은 이산화탄소의 증감보다 지구 표면 온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뿔버들 굴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는 창(窓)밧기 심거 두거 보쇼셔
 밤비에 새넛꽃 나가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량 -

(나) 동풍(東風)이 건똥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내니,
 창(窓) 밧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꺾듯 냉담(冷淡)흔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黃昏)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 것거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다)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살몐이 물으든이,
 주모복거(誅茅卜居)* 하니 밧넛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想像)호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제1수>
 일곡(一曲)은 어디미오 관암(冠巖)에 히 빗흰다.
 평무(平蕪)*에 너 거든이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녹코 벗 온 양 보내노라. <제2수>
 이곡(二曲)은 어디미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晚)커다.
 벽파(碧波)에 곳출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살몐이 승지(勝地)*를 물은이 알게 흔들 엇더리. <제3수>
 육곡(六曲)은 어디미오 조협(釣峽)에 물이 넓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노고.
 ㉤ 황혼에 낚대를 메고 대월귀(帶月歸)*를 하노라. <제4수>
 칠곡(七曲)은 어디미오 풍암(楓巖)에 추색(秋色) 좋다.
 청상(淸霜)*이 없게 치니 절벽(絶壁)이 금수(錦繡) | 로다.
 한암(寒巖)에 혼자 앉아 짐을 잇고 있노라. <제5수>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 주모복거: 터 다듬고 자리 잡음. 두보의 <남수위풍우소발탄(南樹爲風雨所拔歎)>에 사용된 시구
 * 무이: 중국 복건성(福建省)의 명산. 남송 때 주자(朱子)가 정사(精舍)를 짓고 학문에 정진한 것으로 알려짐.
 * 평무: 잡초가 무성한 들판
 * 녹준: 좋은 술동이
 * 승지: 경치가 좋은 곳. 경승지
 * 대월귀: 달빛을 띠고 돌아옴.
 * 청상: 맑은 서리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를 활용하여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사람의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 과정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시적 화자의 개인적 체험을 역사적 의미로 확장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굴히 것거'는 화자의 정성스러운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늦기는 듯 반기는 듯'에서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엇더타 너기실고'와 같이 의문의 형식으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송간', '녹준'을 사람에 비유하여 가상적 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 '황혼'을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하며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3.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종장의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2수>는 풍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화자의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제3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제7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8수>는 계절감을 부각하며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은 가을 들어 가장 짙은 안개가 물러온 날이었다. 밤물을 보러 나간 십여 척의 배가 채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안개는 옥옥거리며 삼 시간에 연안을 휩싸고 말았다. 그 섬에 살면서 나는 기척도 없이 숨어 들어오는 안개의 너울을 여러 번 보았었다. 비릿한 안개 냄새, 거대한 동굴에 갇힌 듯한 그 막막한 느낌. 바다의 안개는 육지의 안개와는 달리 또 얼마나 두텁고 깊던가. 잠깐 사이에 시야는 차단되고 눈 감고도 다니던 뱃길을 삼십 센티미터 앞조차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길로 만드는 것이 바다의 안개였다. 바로 코앞에 선착장을 두고도 배 댈 곳을 못 찾아 빙빙 돌며 찢찢대는 것도, 군데군데 자리 잡은 자그만 돌섬들에 부딪혀 배가 전복되고 마는 사고도 모두 안개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 밤에 안개를 만나면 마을에서는 안개 길잡이를 벌였다. 길을 잃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배들을 불과 소리로 인도하는 길잡이 판은 주로 마을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곤 했다. 그날도 안개가 심하다는 이장의 방송이 있었고 마을 청년들은 모두 선착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내 한쪽에서는 석유를 먹인 솜뭉치에 불을 댕겨 흔들어 대고, 한 편에서는 징이며 팽과리를 동원해 두드릴 수 있는 한 헛갯 두들겨대는 길잡이 잔치가 벌어졌다. 거기다 돌아오지 않은 배의 가족들이 총출동하여 식구의 이름을 부르거나 문자로 기록해 낼 수 없는 괴성들을 질러 대기 시작하면 좁은 선착장은 잠깐 사이에 용광로처럼 들끓게 마련이었다.

타오르는 햇불과 징, 팽과리의 요란한 소리에 못지않게 가족들이 있는 힘을 다해 내지르는 육성 또한 안개를 뚫고 먼 바다까지 도달하는 힘이 있다고 했다. ㉠ 안개 속에 길을 잃고 해매는 배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내와 자식의 목소리만은 반드시 가려들게 돼 있다는 것이었다.

저녁밥을 먹고 난 뒤 나는 자취집 마당에서 소란스런 선착장을 내려다보았다. 꽤 높은 지대에 있었던 자취집에서는 선착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마당에 나오기 전에는 틀림없이 동네 어느 집에 왓자한 놀이판이 벌어진 줄 알았다. 그만큼 안개는 갑작스러웠고 생명을 구하는 햇불의 난무와 소리의 혼란은 축제일의 그것과 너무 흡사했다. 아른아른 흔들리는 수많은 햇불들과 목청이 터져라 불러 대는 절박한 외침이 안개 바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 나는 걸옷을 찾아 입고 선착장으로 내려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배들이 무사히 포구에 닿을 내리는 순간에 나도 거기 함께 있고 싶었다.

(중략)

그날 선착장의 흥분과 열기는 유별났다. 안개가 워낙 짙었고, 배들이 먼바다에 있을 때부터 안개가 포위해 들어온 까닭에 그날의 길잡이는 한층 많은 소리와 불빛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좀처럼 플래시 신호도 보이지 않았고 응답하는 구조의 외침도 들려오지 않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는 중이었다. 그럴수록 햇불은 거세게 타올랐고 징과 팽과리는 깨질 듯이 두들겨졌다.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도 유독 안간힘을 써 가며 징을 두들겨 대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얼굴의 힘줄이 툭툭 불거져 나오도록 신들린 사람처럼 마구 징을 두들기는 남자의 곁으로 다가가던 나는 한순간 멈춰섰다. 바로 김종구였다. 굳게 닫힌 입술, 뚫어질 듯 노려보는 두 눈, 제 가족 아무도 바다에 나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전심전력으로 징을 두들기고 있는 이는 김종구였다.

소리의 혼란 속에서 나는 하염없이 그런 김종구를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보아 왔던 그의 얼굴 중에서 그때처럼 진지한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이마를 적시는 땀방울은 햇불에 비쳐 다이아몬드의 광휘를 내고 있었고, 신명 들린 어긋짓은 몰아의 자세가 흔히 그렇듯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그가 내려치는 징소리는 땅 밑에까지 그 울림이 전해질 만큼 폭넓은 진동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의 다른 소리들을 다 제치고 저 멀리 바다로 내달리고 있었다. ㉡ 김종구는 마치 자신의 징소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어디로 어떻게 소리를 보내야 먼바다의 길 잃은 배들한테 닿을지 그만은 알고 있다고 나는 믿었다. 나는 정말로 그의 징소리가 안개 한 겹을 뚫고 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본 느낌이기도 했다. 이 느낌은 너무나 생생한 것이어서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두터운 안개 장막이 찢어지는 비명을 들었었다.

그 밤, ㉢ 김종구는 곁에 있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있었다. 그는 단지 바다만 보고 있었다. 들어가서 보는 것만큼만 보여 주는 바다, 어느 정도의 깊이를 넘기고 나면 수억만 년 침잠해 있는 심연의 세계도 가지고 있는 바다, 김종구는 오로지 그 바다만 보며 열심히 징을 내려치고 있었다. 그 징소리는, 안개 장막을 찢고 먼바다로 내달린 그 징소리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을 때까지도 한결같은 폭으로 울고 있었다. 내가 선착장을 떠날 무렵에는 가족들과 몇 명의 마을 청년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초저녁부터 시작된 길잡이에 지칠 대로 지쳐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안개는 여전히 두텁고 칙칙했지만 배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말했다. 아마도 배들은 초저녁 일찌감치 근처 무인도로 대피했기가 십상이라고. 그러니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김종구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내 방에 누워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의 징소리에 잠을 설쳤다. 모든 소리와 햇불은 새벽이 되어서야 중단되었다. 마침내 배들이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징을 내던지고 지친 걸음으로 돌아가는 김종구의 모습을 되찾은 새벽의 정적 속에서 떠올렸다. 그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다음날 아침, 간밤의 지독한 안개를 화제 삼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 누구는 햇불에 손을 데었고 누구는 완전히 목이 잠겨 숨도 못 쉴 지경이라는 말들은 갖가지로 들려 왔지만 마지막까지 울려 대던 김종구의 징소리에 관한 언급은 스치는 말로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를 본 사람이 나 혼자이거나 한 것처럼, 그 영혼을 울리는 징소리는 아예 있지도 않았다는 듯이. 그토록이나 집요하고 그토록이나 땅과 바다를 울리던 그 징소리를 정말 아무도 듣지 못했던 것이었을까. 한 권에 우뚝 서서 새벽까지 쉼 없이 징을 울려 대던 그의 모습을 정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을까. 길 잃은 배는 돌아왔지만, 길 잃은 배를 이끌던 김종구와 그의 징소리는 두터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만 이 일에 대해 나는 오랫동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대체 그는 어디로 숨어 버렸을까. 아니, 사람들은 대관절 그를 어디에 숨겼을까…….

- 양귀자, 「숨은 꽃」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전환을 통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 ③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마을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공동의 노력을 보여 준다.
- ② ㉡은 안개를 뚫고 배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소망을 보여 준다.
- ③ ㉢은 김종구는 배가 돌아올 방향을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은 김종구가 안개 길잡이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은 안개 길잡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 준다.

36.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물계자는 신라의 장수였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왕족의 미움을 받아 공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어찌 왕에게 아뢰지 않느냐고 하자, 오히려 물계자는 “신하의 도리는 위험한 것을 보면 목숨을 내놓고, 어려움에 이르면 몸을 잊어버리는 것이라 하였소. 내가 무슨 면목으로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리오.”라고 하면서 거문고를 들고 산에 들어가 여생을 보냈다.

- 『삼국사기』 중에서 -

- ① 김중구가 안개 길잡이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점에서 <보기>의 물계자와 비슷하군.
- ② 안개로 인하여 배가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겪는 위기라는 점에서 <보기>에서 신라의 전쟁 상황과 유사하군.
- ③ 배가 모두 돌아온 후 보인 사람들의 반응은, 김중구가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기>의 물계자가 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군.
- ④ 김중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징을 치는 것은, 세속적 욕심을 버렸다는 점에서 <보기>의 물계자가 거문고를 들고 산에 들어간 것과 비슷하군.
- ⑤ 김중구가 마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화자가 놀라워하는 것은, <보기>에서 물계자의 공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비슷하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그가 운종가(雲從街)에서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어떤 긴장한 계집종이 자주색 명주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쓰워 업고 가고, 그 뒤를 한 계집애가 붉은 비단신을 들고 따라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심생이 어림짐작으로 그 몸을 재어 보아도 어린애가 아니었다.

그는 바짝 따라붙었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고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을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소광통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 보자기가 반쯤 걷혀있었다. 보니 과연 한 처녀라. 봉숭아 빛 뺨에 버들가지 같은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 얼핏 보아도 절색이었다. 처녀 역시 보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옷에 초립(草笠)을 쓰고 좌우로 붙어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마침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걷히고 버들 같은 눈,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혔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① 소년은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떴다. 심생은 어찌 이를 놓치겠는가. 바로 뒤쫓아서 소공주동(小公主洞) 홍살문 안에 이르자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멍하니 한참을 방황하다가 ② 어떤 이웃 할멈을 붙들고 자세히 물어보았다. 호조(戶曹)에서 계사(計士)로 은퇴한 집이요, 16,7세 된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소년이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할멈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돌아서면 회칠한 담장이 나오고, 담장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그 처자가 거처하는 곳이라우.”

노파의 말을 듣고 난 심생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저녁에 집에 거짓말을 꾸며 대었다.

③ “서당 친구가 저와 밤을 같이 지내자고 하니, 오늘 저녁에 가 볼까 합니다.”

그는 행인이 끊어지기를 기다려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때 초승달이 으스스한데 창 밖으로 꽃나무가 썩 아담하게 가꾸어졌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치어 아주 환했다. ④ 심생은 처마 밑 바깥벽에 기대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 둘이 함께 있었다. 소년은 나직한 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데 꿩꼬리 새끼가 우는 듯 낭랑하게 들려왔다.

삼경 쯤에, 여종들은 깊이 잠들었고, 소년은 그제야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거렸다. 심생은 잠이 올 리가 없거니와 숨소리도 내지 못하였다. 그대로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넘어 나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매일 밤 심생이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던 소년은 그녀의 부모에게 중인인 자신과 양반인 심생이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과 혼인하고 싶다는 마음을 밝히고 암묵적 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매일 밤 심생은 소녀에게 왔다가 새벽에 돌아간다.

그러나 심생은 아무리 조심을 하여도 집에서는 그가 바깥에서 자고 오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절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라는 명이 내렸다. 심생은 마음에 몹시 불만이었으나, ⑥ 집에서 다그치고 친구들이 이끌자 책을 싸들고 북한산성으로 올라갔다.

선방에서 한 달쯤 지냈을 때, 어떤 이가 찾아와 소년이 쓴 언문(諺文) 편지를 전했다. 뜯어 보니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다. 소년은 이미 죽은 것이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봄추위가 아직도 매서운데 절간의 공부는 잘 되시는지요? 저는 낭군을 잊을 날이 없답니다.

소녀는 낭군이 가신 뒤 우연히 한 병을 얻어 증세가 깊어져 백약이 무효하운지라 이제 곧 죽게 될 듯하옵니다. 박명하 소녀가 살아 본들 무엇하겠는지요만은, 세 가지 큰 한(恨)이 마음속에 구구하게 남아 있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저는 본래 무남독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자라 장차 부모님께서는 데릴사위를 얻어 늘그막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하운데 뜻하지 않게 좋은 일에 마가 끼어 천한 제가 지체 높은 낭군과 만났으니, 같은 신분의 사위를 얻어 오순도순 살리라던 꿈은 모두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소년은 시름을 얻어 끝내 병들어 죽기에 이르러 늙으신 부모님은 이제 영영 기댈 곳이 없어졌으니, 이것이 첫째 한이옵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비록 계집종이라도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남편이 있고 시부모가 계시지요. 세상에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가 있겠사옵니까. 소녀는 남의 속임을 받아 몇 달이 지나도록 낭군 댁의 늙은 여종 한 사람 본 일이 없사옵니다. 살아서는 부정한 자취요, 죽어서 돌아갈 곳 없는 혼백이 되리니 이것이 둘째 한이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일이란, 음식을 잘해 드리고 옷을 잘 지어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낭군과 함께 보낸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제가 손수 지어 드린 옷도 적다고 할 수도 없는데, 낭군의 집에서 낭군께 밥 한 그릇 대접한 일이 없고 옷 한 벌 입혀 드릴 기회가 없었으니 이것이 셋째 한이옵니다.

인연을 맺은 지 오래지 않아 급작스레 이별하옵고, 병들어 누워 죽음이 다가왔으나 낭군을 뵈고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할 수가 없사옵니다. 이러한 소녀의 슬픔이야 말해 무엇하겠사옵니까. 애간장이 끊어지고 뼈가 녹는 듯하옵니다. 연약한 풀은 바람 따라 흔들리고 꽃은 흩어진다지만, 아득히 깊은 이 한은 어느 날에야 사라질는지요?

아아! 창을 사이에 두고 만나던 것도 이로써 끝이옵니다. 낭군께서는 소녀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더욱 학업에 정진하시어 하루빨리 벼슬길에 오르시기를 바라옵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편지를 본 심생은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리 내어 통곡해 본들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뒤 심생은 붓을 던지고 무과에 나아가 벼슬이 금오랑에 이르렀으나 그 또한 일찍 죽고 말았다.

-이옥, 「심생전」-

37.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상황에 대한 묘사가 한 인물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 ③ 인물에 대한 추측과 확인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 ④ 공간을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8.<보기>를 참고하여 **편지 내용**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는 신분을 엄격히 구별하고 부모가 정해 주는 사람과 혼인하는 풍습을 가진 사회였다. 이러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심생전」은 자유연애와 신분 차이로 인한 혼사 장애를 겪는 남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리고 있다. 심생과 만나던 소녀는 죽기 전에 쓴 자신의 편지에 사랑하는 사이가 신분 차이로 인정받지 못하는 당시 세계의 부당함에 대해 원망하는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저는 낭군을 잊을 날이 없’다고 하는 데서, 소녀가 심생에 대한 애정이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계집종이라도’ ‘남편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말에서, 소녀는 신분적 차이가 심해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소녀가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데서, 심생이 소녀의 존재를 그의 부모에게 며느릿감으로 말하지 못하는 혼사 장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소녀가 죽음 직전에도 ‘낭군을 뵈고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한다면 ‘창을 사이에 두고 만나던 것도 이로써 끝’이라고 한 데서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을 느낄 수 있다.
- ⑤ 소녀가 ‘낭군 덕의 늙은 여중 한 사람 본 일이 없’고 ‘죽어서 돌아갈 곳 없는 혼백이’ 될 거라고 말한 데서 사랑하는 사이가 신분 차이로 인정받지 못하는 당시 세계의 부당함에 대한 원망을 짐작할 수 있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낮선 이성과의 마주침에 부끄러움을 면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 ② ㉡: 소녀의 신변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행동이다.
- ③ ㉢: 소녀 집에 가 있을 자신의 행적을 들키지 않기 위한 말이다.
- ④ ㉣: 뒤쫓아 온 자신의 존재를 소녀가 눈치 채지 못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다.
- ⑤ ㉤: 자신의 솔직한 감정보다 집안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더욱 휘둘리는 모습이다.

40. ㉠와 가장 관련이 있는 한자 성어는?

- ① 전전반측(轉轉反側) ② 수수방관(袖手傍觀)
- ③ 교언영색(巧言令色) ④ 경거망동(輕舉妄動)
- ⑤ 고복격양(鼓腹擊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①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②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나)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③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맷빛의 등성을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④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농울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⑤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애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속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玉)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靑苔)라도 자옥이 끼일 일인 것이다.

- 서정주, 「무등을 보며」 -

4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② 물음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부정적인 외적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현실에 좌절, 절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 그것을 헤쳐 나가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대응 방식은 당면한 현실이 어떠한지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현실을 수용하거나 희망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 ① (가)의 '푸른 하늘'과 (나)의 '우리 새끼'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군.
- ② (가)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와 (나)의 '옥(玉)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이요'에서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가)의 '슬퍼도 좋다'와 (나)의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는 화자가 현실에 좌절했을 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저문 들길'과 (나)의 '오후의 때'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 ⑤ (가)의 '바라보자'와 (나)의 '짚어라'는 부정적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암시하고 있군.

4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의 지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말줄임표를 활용하여 여운을 주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 가난의 비극적인 모습을 묘사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두 자연물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궁핍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권유하고 있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최씨의 아들 영수는 3·1운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에 수배되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다.

최씨: (독백) 오늘이나 밤에 조용히 다니러 올려는지? 온대도 붙잡힐까 무서워서 겁이 난다마는 올려거든 오늘 와서 제가 좋아하는 송편이라도 좀 먹지를 앓고.

서씨: (건넌방에서 나와 최씨 앞에 앉아서 콩을 간다.)

최씨: 어린놈은 자느냐? / 서씨: 네.

최씨: 그것이 애비가 보고 싶어서 옥장 아빠— 아빠 부르는걸!

서씨:

최씨: 남들도 붙잡혀 가야 다직해서 한 삼사 년 치루면 그만일 테니 그럴 셈하고 자현*을 시키라고 권면들은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평생 그렇게 피신만 해 다니랴도 없고.

서씨: 가서 한 삼 년이고 치루고 나오는 게 낫지. 그 짓을 유루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도 요전에 왔을 때 그런 말눈치를 뵈었더니 펄쩍 뛰면서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자현을 하라느냐고 그럽디다마는.

순사: (차면 안으로 환도를 덜그럭거리며 서슴잡고 쑥 들어선다.) 안녕하십니까?

최씨: (자지러지게 놀라고)

서씨: (내외를 하느라고 방으로 들어간다.)

최씨: (겨우) 네, 어서 오시오.

순사: (토방 앞으로 가까이 와서 휘휘 둘러보면서) 거 송편 속입니다그려?

최씨: 네. 어린것도 있고 해서 추석이라고.

(중략)

순사: 네 좋습니다. 가게 보든 걸 넘기셨다지요?

최씨: 네. / 순사: 왜요?

최씨: 그건 두어서 무얼 하게요?

순사: 그렇기도 하지만 얼마에 넘기셨습니까?

최씨: 물건 남은 것하고 집하고 터전까지 켜서 옥천 냥 받았어요.

순사: 옥천 냥이면 일천이백 원? 거 잘 받으셨는데요!

최씨: 그런 말씀 마시우. 그래 보여도 그제 눈을 오십 마지기나 잡혀서 채려놓은 가게라우.

순사: 침에 들인 밀천이 많다고 그 값이 다 나가나요? 그래 그 돈은 자제한테로 보내셨나요?

최씨: 아—니요. (황망히) 어데 가서 있는지 알아서 보내요?

순사: 허허허허. 자—그럼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씨: (청대콩 가지를 손에 든 채 일어서서) 네, 평안히 가시고 또 오시요. 또 와도 걱정이오마는.

순사: 허허허허. 그렇지만 오기만 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허허,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서서 나간다.)

최씨: 안녕히 가시우.

서씨: (방에서 나와 앉는다.) 가게 팔린 소식은 어데서 듣고 와서.

최씨: 그 사람네가 그 소식 모르셨나?

서씨: 그래도 가서 일러바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지요? 좀 있으면 집집마다 살강에 손같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고 다닐걸.

최씨: 시방은 세상이 그렇게 밝단다. (사이) 인제는 어두워서 안 보인다. 불을 좀 켜지.

서씨: (건넌방으로 들어가서 석유 램프에 불을 켜 가지고 나와 적당한 곳에 걸어놓는다.) 눈 잡힌 것은 아니 몰러 주겠대요?

최씨: 그게 누구라고 물어 주겠니? 그 사람이 꼭 제 것을 만들 욕심으로 애초에 잡았던 것인데. 그나마 기한이 하루 이틀 지낸 것도 아니고 벌써 석 달이나 지낸걸. (사이) 진작 알았더라면 내라도 나서서 다른 돈을 제 값을 받고 팔아다가 그것을 물렸을 것을.

영수: (지쳐둔 부엌문을 열고 어엿이 나온다.)

최씨·서씨: (놀라 먼저 대문간계를 본다.)

최씨: 이애야 방금 다녀갔다!

영수: 알았어요. 뒤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서 부엌으로 들어오니깐 이 얘기하고 있는 게 벌써 그렇드구만요. (웃는다.)

최씨: 방으로 들어가자.

영수: 괜찮어요. 방금 다녀간 걸 어데 되짚어 오나요. (시계를 꺼내 본다.) 아뿔싸! 한 시간밖에 아니 남았군. 어머니, 가게는 제가 기별한 대로 그 사람한테 넘기고 돈 찾으셨지요?

최씨: 오냐. / 영수: 저 주세요.

최씨: (안방으로 들어간다.)

영수: 상인이는 자유? / 서씨: 네. 어데 가지우?

영수: 응, 이려고 있어야 수족을 묶인 것 같아서 일도 못 하고, 그래 몇몇이서 오늘 저녁에 상해로 떠나기로 되어서.

서씨: (울상을 한다.)

최씨: (돈을 손에 쥐고 나온다.) 어데 가느냐?

영수: 네. (돈을 받아 세다가 일부분을 도루 최씨한테 주면서) 이게 이백 원이니 이것을 두고 가용에 쓰세요. 그리고 눈이 그래도 그렇 저런 일백 한 오십 마지기는 남았으니까 추수하면 집안 지내기는 넉넉할 겁니다. 저는 이번에 떠나면 아마 돌아오기는 줄연 찻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최씨: (질색해서) 이애야, 그게 무슨 소리냐? 차라리 법소에 가서 자 현을 하고 몇 해 고생을 하고 말지 가기는 어데를 간단 말이나.

영수: 아니에요. 어머니는 다 모르십니다. (서씨더러) 고생스럽더라도 어머니 모시고 상인이 데리고 조심해서 지내요.

서씨:

최씨: 글썽 어떡하자고 이러느냐? 내야 다 늙어서 죽을 날을 날 받아 놓다시피 했으니 죽으면 그만이지만, (서씨를 돌아보고) 이 젊으나 젊은 것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어찌 살아가란 말이나?

영수: 그런 일 저런 일을 다 생각하다가는 꿈쩍 못하게요? (사이) 혹시 형편이 여의하면 오시라고 기별할 테니 저것들 데리고 오세요.

최씨: 가는 데가 어데길래? / 영수: 상해예요.

최씨: 상해가 어데냐? / 영수: 청국이에요.

최씨: (떨쩍 떠다.) 뭐? 청국? 저—대국 말이지?

영수: 네, 무얼 그러세요? 옛날과는 달라서 이틀이면 오고 가고 한답니다. (시계를 꺼내 본다.) 시간이 썩 촉박하군. 자—어머니. 그럼 가서 편지로 자세한 말씀 드리지요. (서씨더러) 잘 있수.

영수, 허둥지둥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고, 최씨와 서씨 뒤미처 눈물을 씻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간다.

- 채만식, 「제향날」 -

* 자현: 자기 스스로 범죄 사실을 관아에 고백하던 일. 자수

44. 윗글을 공연으로 준비하기 위한 지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이 시작할 때 최씨의 소품으로 송편 속을 준비한다.
- ② 순사는 칼을 찬 제복을 준비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갖춘다.
- ③ 영수는 낡은 옷을 입고 등장하여 고난의 상황임을 나타낸다.
- ④ 서씨가 최씨와 대화할 때 아이의 소리를 효과음으로 삽입한다.
- ⑤ 서씨가 석유 램프를 켜서 나오는 장면에서 효과를 살리기 위해 조명을 조정한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희곡에서는 인물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위 요소를 분석한다. 행위 요소는 인물과 인물이 갈망하는 목표, 목표를 위한 방법, 그러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인물을 돕는 조력자와 인물을 방해하는 방해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영수가 갈망하는 목표는 일제 강점기 조국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영수가 청국으로 떠나려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최씨와 서씨는 영수가 바라던 갈망을 이루는 것을 돕고 있으니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오십 마지기의 눈을 처분하게 된 것은 영수의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 볼 수 있겠군.
- ⑤ 영수를 잡기 위해 집을 드나드는 순사는 영수에 대한 방해자로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